

경남지역 삼국시대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변천과 전개

정우현*

〈목 차〉

- I. 머리말
- II. 관련유적 개요
- III. 주거지의 속성과 출토유물 검토
- IV. 주거지의 변천과 전개
- V. 맺음말

국문요약

경남지역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최근의 조사사례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기존의 연구의 중심이 주로 평면형태가 원형·타원형인 수혈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별 유구의 구조 분석 또는 구들과 같은 내부시설 분석에 치중되어 왔으며, 최근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방형계 수혈주거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경남지역 삼국시대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시기별 변천 및 전개양상 파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이 지역의 방형계 수혈주거유적을 수계와 지역을 기준으로 동부, 중부, 서부로 세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을 평면형태와 기둥배치, 노(爐)시설과 규모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시기구분은 주거·생활유구에서 출토된 토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연구성과가 집대성된 고분 출토 토기 편년을 토대로 4시기 구분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3세기 후엽에서 7세기대에 해당한다.

그 결과 시기별 주거지의 유형은 1기(3C 후엽~4C 초)에서 3기로 갈수록 평면

*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상 점차 세장한 형태가 등장하며, 방형은 주로 동부지역, 장방형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둥배치는 1기에 무주식이 확인된 이후 4기까지 꾸준히 확인되며,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다 4기에는 무주식을 제외한 모든 형태는 소멸한다. 노시설은 구들형이 1기부터 단계별로 동에서 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부뚜막형은 2기부터 3기까지 전 지역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와 함께 규모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시기성보다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파악되었다. 즉 동부지역에는 중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소형, 대형, 초대형이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서부지역은 소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거지의 전개양상은 1기의 경우, 동부지역에서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이후 단계별로 동에서 서로 점차 확산되다 3기에는 경남지역 전역에서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의 주거문화가 가야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되어가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부지역의 진주 평거동유적의 경우에는 신라보다는 백제와의 문화접변 등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지리적 여건이 관련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동부지역인 창녕 계성리유적의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백제지역의 주거지와 유사하며 유물도 창녕계보다 백제계 토기가 다수 출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에서 서로의 일방적인 문화전파는 성립되기는 어렵다. 4기에는 수혈주거지가 급감하고, 지상식건물지가 대단위로 확인되는 유적의 수가 증가해가는 것으로 보아 수혈주거지가 점차 지상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판단된다.

주제어 : 삼국시대, 경남지역, 방형계 수혈주거지, 입지, 평면형태, 기둥배치 형태, 노시설, 주거지유형

I. 머리말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생활을 담고 있는 생활무대로서 생활양식이나 사회, 환경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민족과 문화마다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주거문화는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변화 발전하여 왔으며, 주거의 보편성과 지속성, 변화양상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주거문화가 확인되는 주거지는 취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매장유구와 달리 당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기에 고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현재 주거지에 관한 연구 성과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편중되어 있고 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 주거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성과가 미약한 편이지만 최근 들어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의 조사가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삼국시대 주거·취락에 대한 연구는 크게 통시적인 관점에서 취락의 분포정형에 대한 연구와 주거유적 자체만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 주거·취락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주거·취락에 대한 연구로 주거유적 자체만으로는 자료가 부족하여 고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취락의 분포유형이나 규모, 위계화 정도, 그리고 국가로의 발전과정 등을 중심지이론에 대입하여 취락의 분포정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고분유적과 주거유적과의 비교 및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유적간의 교류상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이현혜 1996, 권오영 1996, 주보돈 1998·2007, 이희준 2000, 김옥순 2004)

둘째, 주거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와 주거유적의 분석을 통한 지역성 연구로, 2000년 전후로 대규모 주거유적들의 발굴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적들에 대한 연구는 주거지의 평면형태, 내부시설, 기둥배치 등과 같은 주거지의 속성을 이용해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을 검토하고 유적 자체에 대한 성격과 변천과정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임영옥 2000, 김창익 2000, 장용석 2001, 임동재 2005, 최경규 2006, 김나영 2007, 강정미 2011)

셋째, 지역권을 설정하고 주거지의 형태별 특징을 분석하여 주거유적의 시

기성·지역성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주성 2008, 김진철 2008, 김창익 2009, 유병록 2009, 권귀향 2011)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주거유적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회성격에 대한 분석, 민속학과 문헌사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 건축사적 관점을 토대로 주거지의 복원과 공간형태에 대해 연구, 주거지 내부구조의 개별속성인 벽, 벽구, 노(爐)시설에 관한 개별 연구 등이 있다.

이상으로 주거·취락의 연구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주거·취락에 대한 연구가 대규모 취락유적들이 발굴조사 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고분자료에 의존하거나, 협의적인 관점에서 단일유적으로 한정하여 유적 자체의 성격과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지역권을 설정한 광의적인 개념의 연구도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진한 수준이다. 또한, 개별 유적의 속성 분석 또는 구들과 같은 내부시설 분석에 치중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거지의 속성 중 평면형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경남지역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는 평면상 방형계과 원형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주거지의 분포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주거지의 발생시점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김진철에 의해 타원형주거지의 분포범위를 가야 고토의 영역으로 이해하였듯이,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어떠한 분포범위를 가지고 구조적 특징과 전개양상은 어떠한지 밝혀야할 연구과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경남지역 삼국시대 취락유적에서 확인되는 방형계 수혈주거지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주거지의 구조적인 특징과 출토유물의 분석을 통해 주거지의 변천과 전개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4세기부터 7세기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부산·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관련유적 개요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4~7세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 주거유적이 조사된 예는 41개소 정도이며, 수혈주거지는 총 1,000여동이 확인되었다. 이 중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은 23개 유적에서 680여동이 확인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세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단위 주거군이 나 취락 전체가 발굴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많다. 이로



도 1. 방형계 수혈주거지 관련유적 분포도

인하여 전체적인 변화의 과정이나 구조적 특징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중 발굴조사 보고서가 출간된 것 중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어느 정도 규모나 정형성을 갖추고 있는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리적인 여건상 수계와 지역을 기준으로 동부(낙동강 이동지역), 중부(낙동강 이서에서 남강 이동지역), 서부(남강 이서 내륙지역)로 구분하여 주거지의 변천과 전개양상을 파악하였다.

표 1. 경남지역 방형계 수혈주거지 조사현황

지역권	유 적 명	입 지	시 기	주거지수
동 부	울산 매곡동 ¹⁾	구릉 사면부	5C 초엽 ~ 5C 중엽	1
	울산 서하리 ²⁾	평지	6C ~ 7C	2
	울산 평천리 ³⁾	구릉 말단부	4C 중엽 ~ 5C 말엽	10
	울산 천상리 ⁴⁾	구릉 말단부	5C	1
	양산 명동 ⁵⁾	구릉 말단부	4C 중엽 ~ 5C 말엽	95
	양산 가촌리 ⁶⁾	구릉 사면부	5C ~ 6C 중엽	2
	기장 가동 ⁷⁾	구릉 사면부	3C 말엽 ~ 6C 중엽	150
	기장 대라리 ⁸⁾	구릉 사면부	3C 말엽 ~ 5C 말엽	142
	창녕 계성리 ⁹⁾	구릉 말단부	4C 말엽 ~ 5C 중엽	24
중 부	김해 봉황대 ¹⁰⁾	평지	4C ~ 5C	20
	김해 봉황동 ¹¹⁾	평지	5C 말엽 ~ 7C 초엽	2
	김해 대청 ¹²⁾	구릉 말단부	4C ~ 5C 초엽	16
	창원 신방리 ¹³⁾	구릉 말단부	4C 중엽 ~ 5C 중엽	12
	창원 봉림동 ¹⁴⁾	구릉 말단부	5C ~ 6C	7
	창원 가음정 ¹⁵⁾	구릉 말단부 / 평지	6C ~ 7C	8
	합안 오곡리 ¹⁶⁾	구릉 말단부	4C 말엽 ~ 5C 초엽	37
	거제 아주동 ¹⁷⁾	구릉 말단부	4C 말엽 ~ 5C 초엽	40
서 부	진주 평거동 ¹⁸⁾	평지	4C 말엽 ~ 5C 말엽	31
	합천 저포리 ¹⁹⁾	구릉 사면부	5C 말엽 ~ 6C 초엽	1
	산청 하촌리 ²⁰⁾	평지	5C ~ 7C 초	72
	함양 우명리 ²¹⁾	말단부	5C 중엽 ~ 6C 초엽	11

1)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매곡동유적 1지구』, 2005.
 2)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서하리 서하유적』, 2006.
 3)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2005.
 4) 동아대학교 박물관, 『울산 천상리유적』, 1997.
 5) 부경문화연구원, 『양산 명동 명곡2지구획지구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학술지문회의 자료』, 2012.
 6) 동아대학교 박물관, 『양산 물금유적』, 2000.
 7) 울산대학교 박물관, 『기장 가동유적II』, 2009.
 8)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장 청강·대라리유적』, 2011.
 9) 우리문화재연구원, 『창녕 계성리유적』, 2008.
 10)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해 봉황대유적』, 1998.
 11)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봉황동 442-7번지 유적』, 2006.
 12)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해 대청유적』, 2002.
 1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2009.
 14) 한국문화연구원, 『창원 봉림동유적 I』, 2011 ; 『창원 봉림동유적II』, 2012.
 15) 창원대학교 박물관, 『94창원 가음정동유적』, 2001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2009.
 16) 우리문화재연구원, 『합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2008.
 17) 우리문화재연구원,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2012.

Ⅲ. 주거지의 속성과 출토유물 검토

1. 주거지의 속성

주거지에 대한 속성은 평면형태, 규모, 기둥배치, 부뚜막 및 구들 등의 노시설, 저장시설의 유무와 방향, 바닥면처리, 벽체시설 등에 대한 개별요소와 구조, 그리고 특성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3개소의 유적에서 확인된 680여동의 방형계 수혈주거지 중 대체로 양호한 유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관련 속성은 평면형태, 규모, 노시설, 기둥배치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형식분류를 하였다.

1) 평면형태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현재까지 조사된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로 대별되며 방형계는 장단비를 기준으로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세분한다.

장단비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할 때, 1:1.3과 1:1.4²²⁾를 기준으로 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고자에 따라 장단비 1:1.2~1:1.5 범주에서 방형과 장방형이 혼재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장단비의 수치적인 기준보다 보고자의 시각적인 판단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하였다.²³⁾

하지만 장단비가 1:1.2보다 큰 경우 장방형으로 인지하고 있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장단비 1:1.3 또는 1:1.4보다는 장단비 1:1.2를 기준으로 1:1.2 미만인 것을 방형(I), 1:1.2보다 장단비가 큰 것을 장방형(II)으로 구분하겠으며, 빈도수는 적지만 1:1.6보다 장단비가 큰 것을 세장방형(III)으로 분류하였다(표 3).

1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주 평거 3-1지구유적』, 2011.

19) 영남대학교 박물관, 『합천 저포고분A 발굴조사보고』, 1987.

2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산청 하촌리유적』, 2011 ; 경남문화재연구원, 『산청 하촌리유적Ⅱ』, 2011.

21) 동서문물연구원, 『함양 우명리유적』, 2009.

22) 김나영,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5쪽.

23) 권귀향,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의 전개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2쪽.

2) 기둥배치

기둥은 지붕의 하중과 벽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주거지 속성이다. 또한 건물의 형태, 내부공간의 활용, 증·개축, 건물의 폐기상황 등의 다양한 사실들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속시설이다.²⁴⁾ 그러나 발굴조사 중 삭평이나 교란, 파괴 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형성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래서 비교적 기둥형태가 정연한 배치 상태를 보이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무주식(A)은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두 가지의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둥을 지면 위에 바로 세웠거나 초석을 받쳤을 가능성과 두 번째는 벽체시설로만 상부구조를 지탱했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²⁵⁾

4주식(B)은 수혈주거지 내부 중심에 1×1 형태의 4주식 형태로 이는 삼한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6세기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4주식+벽주식(C)은 벽에서 인접한 거리에서 벽을 따라 돌아가는 벽주혈과 주 주혈인 4주식이 확인되는 형태이다. 벽체와 지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둥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다른 형태와 달리 기둥의 구조법이 발달된 형태이다.

벽주식(D)은 벽에서 어느 정도 일정거리를 두고 배치된 벽기둥만 확인되는 형태이다. 이는 수혈벽을 따라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횡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걸어 기둥을 결속시킨 다음 서까래를 받치도록 한 구조이거나 수혈벽을 보강 또는 벽체를 구성하기 위한 뼈대의 역할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⁶⁾(표 3).

3) 노(爐)시설

노시설은 난방, 취사, 채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내부시설로 주거지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이 노시설은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용어의 선택과 개념에서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다.²⁷⁾

예를 들면 김나영은 무시설식, 부뚜막식, 온돌식(구들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²⁸⁾ 김진철은 무시설식이 실제 상부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폐기과정에서

²⁴⁾ 취락연구회,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춘추각, 2004.

²⁵⁾ 김나영,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2쪽.

²⁶⁾ 김도경, 『한국 고대 목조건물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00쪽.

²⁷⁾ 이민성, 『한국 상고시대의 노시설 연구-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강민, 『삼한시대 주거지 내 부뚜막과 구들시설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²⁸⁾ 김나영, 『영남지역 삼한시대 주거지의 변천과 지역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37~41쪽.

상부구조물이 파괴되어 아궁이 부근의 피열흔만이 남아 있는 양상으로 이해하여 형식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²⁹⁾ 이는 지각(支脚)과 하부 피열흔의 위치에 따라 원래 형태의 유추가 가능하지만, 보고서 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명확하지 않아 통계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김진철의 안을 수용하여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내부에서 확인되는 노시설의 형태를 크게 구들³⁰⁾형(가)과 부뚜막³¹⁾형(나) 2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구들형과 부뚜막형의 구분은 고래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고래가 설치되지 않고 벽면과 직교되게 설치된 것을 부뚜막형, 부뚜막이 주거지의 벽과 나란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한 줄의 고래가 벽을 따라 둘다 배연되는 형태를 구들형으로 구분한다(표 3).

이러한 노시설의 축조재료는 돌과 점토만을 사용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있다. 돌을 이용해 구들을 축조한 것으로는 창원 가음정동, 창원 봉림동유적 등이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사례는 점토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토 사용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로의 연기누출에 따른 보수가 용이하며, 난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³²⁾(표 3).

4) 규모

주거지의 규모는 그 내부 면적에 따라 거주 가족의 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³³⁾ 보통 1인당 평균소요 면적을 5㎡(1.6평)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³⁴⁾ 이에 따라 면적을 산출한 결과, 규모는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면적이 25㎡이하인 것은 소형(A), 26㎡~49㎡이하인 것은 중형(B), 50㎡~69㎡이하는 대형(C), 70㎡이상은 초대형(D)으로 분류하였다.

²⁹⁾ 김진철,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9~43쪽.

³⁰⁾ 방밑에 화기가 통하게 하여 난방을 하는 구조체를 뜻하는 용어로 부뚜막시설에 열기가 나가는 굴뚝 부분이 길어져 난방기능이 강조되면서 취사기능이 병행되는 시설이다. 즉, 열기가 나가는 통로인 고래가 생겨 굴뚝 부분이 길어진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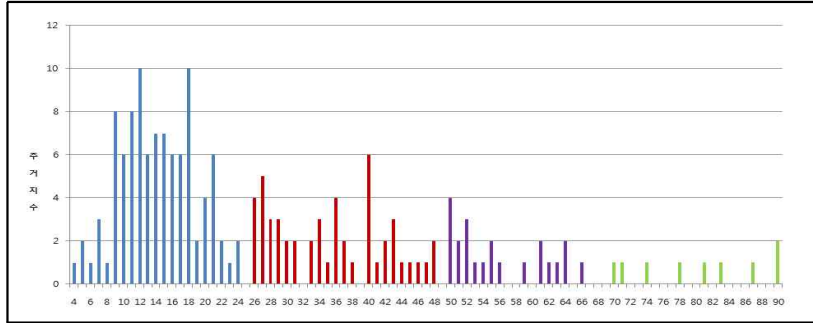
³¹⁾ 취사용기를 걸어 취사를 할 수 있게 만든 시설로 연기를 이용한 난방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부뚜막은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만든 고정식, 다른 하나는 어디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 내 고정식 부뚜막만 대상으로 하였다.

³²⁾ 공봉석,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 연구', 『한국고고학보』66, 한국고고학회, 2008, 109쪽.

³³⁾ 임영욱, 『영남지역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6쪽.

³⁴⁾ 윤우준, 『미사리 원삼국시대 주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표 2. 방형계 수혈주거지 규모 분포



이상과 같이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구조 속성을 정리한 것이 표 3과 같다.

표 3. 주거지 구조의 속성분류

		속 성	내 용
평 면 형 태	I	방형	장단비 1:1.2 미만
	II	장방형	장단비 1:1.2 ~ 1:1.6 미만
	III	세장방형	장단비 1:1.6 이상
기 등 배 치	A		무주식
	B		4주식
	C		4주식+벽주식
	D		벽주식
노 시 설	가		구들형
	나		부뚜막형
규 모	1	소 형	면적이 25㎡ 이하
	2	중 형	면적이 26㎡ ~ 49㎡ 이하
	3	대 형	면적이 50㎡ ~ 69㎡ 이하
	4	초대형	면적이 70㎡ 이상

2. 출토유물

주거유적의 편년은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거나 생활유구의 경우에는 장기 거주 과정에서 파손품이 많고 취사 습관에 따라 새로운 기형으로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형식변화가 느린 편이다. 또한 사용 당시의 유물과 폐기된 이후의 유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반관계를 통한 단계설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동시기에 일괄적으로 부장되면서 시간적인 변화가 뚜렷한 고분 출토 자료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편년 단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³⁵⁷ 주거지 내 토기를 종합하여 1기~4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3세기 후엽~4세기 초엽에 해당하며, 토기는 대부분의 기종이 회백색 연질에서 회청색경질로 변화해간다. 고배는 새로운 형식인 유개고배가 출현하며, 무개고배는 동부지역의 경우 무투창 외반구연고배가 대표적이고, 서부지역의 경우 투공고배를 대표적 기형으로 볼 수 있다. 기대는 기형이 다양화하며, 발형기대와 통형기대가 등장하고 노형기대는 구연이 동부최대경과 같거나 커진다. 일상용 토기로는 적갈색연질토기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저부의 형태에 따라 지역차가 확인된다.³⁶⁷ 동부지역은 원저토기가, 서부지역에서는 평저토기가 다수를 이루며, 중부지역은 원저와 평저토기가 혼재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기장 대라리유적, 기장 가동유적, 김해 대청유적, 김해 봉황대유적 등이 있다.

2기는 4세기 중엽~4세기 말엽에 해당하며, 토기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기종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동부지역의 무개고배는 각부가 현저히 길어지며 구연부가 약간 외반하고, 서부지역은 동부지역과는 다른 무투창고배가 주를 이룬다. 유개고배는 긴 각부에 세장한 형태의 이단직렬투창고배가 대표적이다. 노형기대는 점차 자취를 감추면서 구연이 동부최대경보다 커지며, 발형기대는 동체부에만 문양이 시문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울산 평천리유적, 기장 대라리유적, 기장 가동유적, 양산 명동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김해 대청유적, 김해 봉황대유적, 창원 신방리유적, 함안 오곡리유적, 거제 아주동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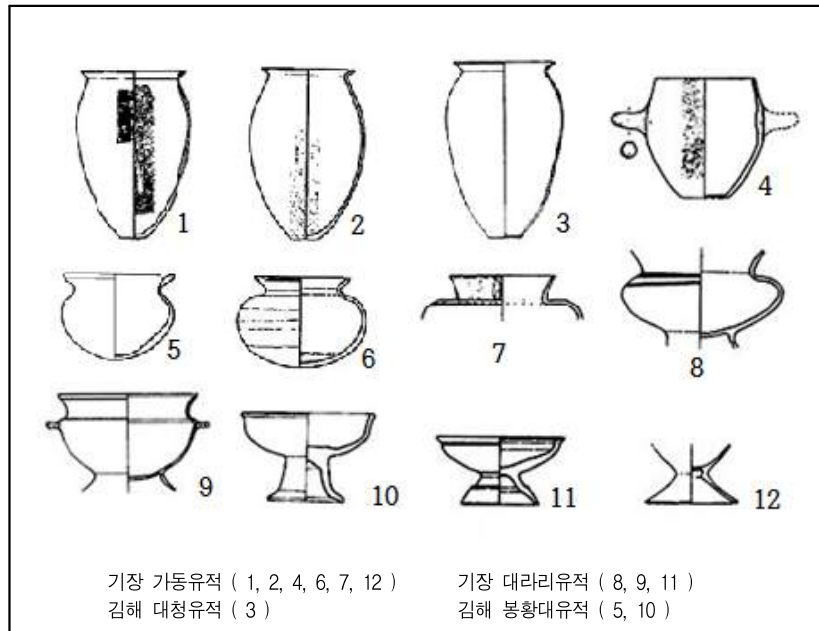
3기는 5세기 초엽~6세기 초엽에 해당하며, 토기는 무개고배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일단투창무개고배가 잔존한다. 앞 시기에 유행하던 이단직렬투창유개고

³⁵⁷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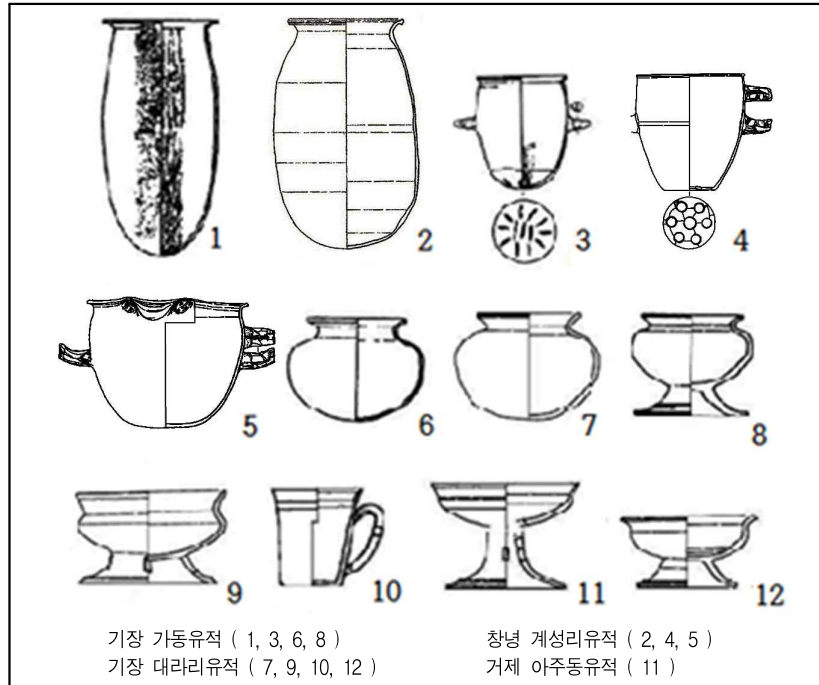
³⁶⁷ 이창희, 『삼한시대 남해안의 일상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2~90쪽.

배는 각부가 단각화하며 투창이 세장방향에서 방형으로 변한다. 그 외에 일단투창유개고배가 출현하며, 경부에 3개의 파상문 문양대로 이루어진 장경호가 유행하게 되고 유개장경호도 등장한다. 기대는 삼각투창의 대형발형기대가 출현하며, 소형 원통형기대도 이 시기에 와서 유행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울산 매곡동유적, 울산 평천리유적, 울산 서하리유적, 울산 천상리유적, 양산 가촌리유적, 양산 명동유적, 기장 대라리유적, 기장 가동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김해 봉황대유적, 김해 대청유적, 김해 봉황동유적, 창원 신방리유적, 창원 봉림동유적, 창원 가음정유적, 함안 오곡리유적, 거제 이주동유적, 산청 하촌리유적, 함천 저포리유적, 함양 우명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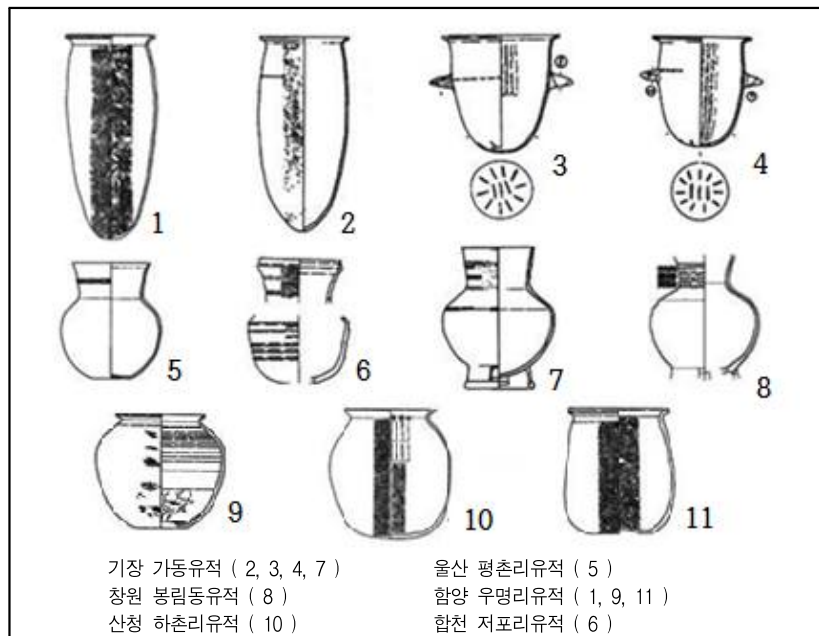
4기는 6세기 중엽~7세기 대에 해당하며, 토기는 앞 시기에 유행하던 많은 기종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고, 환형꼭지에 천정부가 둥근 개와 각부가 짧은 단각고배 및 이중구연대부장경호 등이 동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울산 서하리유적, 기장 가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 창원 봉림동유적, 창원 가음정유적, 산청 하촌리유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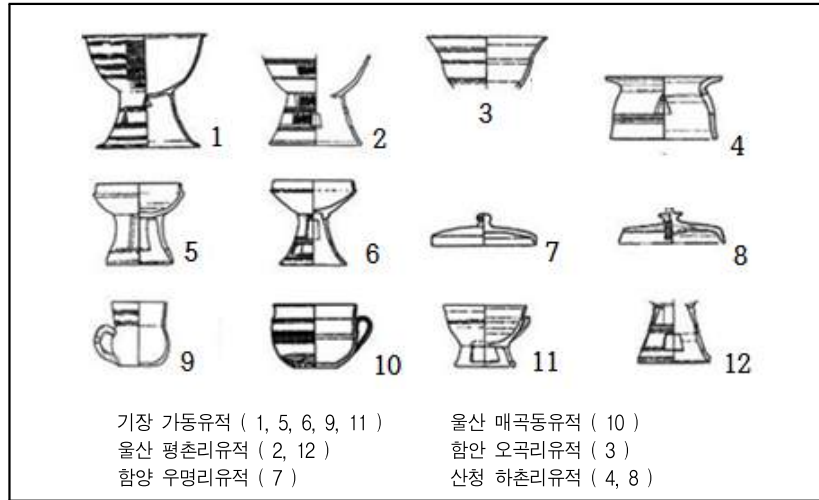
도 2. 주거지 내 출토유물 I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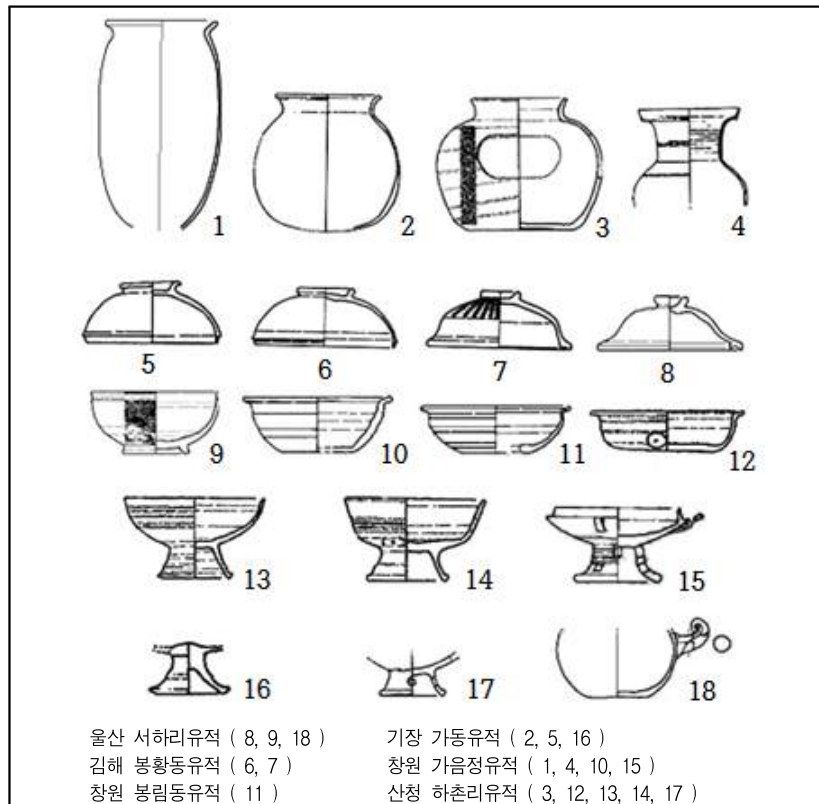
도 3. 주거지 내 출토유물 II (2기)



도 4. 주거지 내 출토유물 III-1 (3기)



도 5. 주거지 내 출토유물 III-2 (3기)



도 6. 주거지 내 출토유물 IV (4기)

IV. 주거지의 변천과 전개

1. 주거지의 변천

1) 입지

삼국시대 취락의 입지는 대부분 독립된 구릉지, 선상지, 산록완사면, 구릉말단부, 충적대지, 하안 및 해안지역 등 다양하나 크게 구릉과 평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구릉의 경우 정상부와 사면부 그리고 구릉말단부와 평지가 접하는 부분 또는 꼭간부에 주로 위치하며, 평지의 경우는 선상지나 충적대지, 하천변의 자연제방과 같은 곳에 위치한다.

표 4. 유적의 시기별 입지유형

입지구분	유적명	시기	4C		5C		6C		7C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3기	4기	
구 릉	정상부 및 사면부	기장 대라리	■	■	■	■	■				
		울산 매곡동			■	■	■				
		양산 가촌리			■	■	■	■			
		합천 저포리					■	■			
	말단부 및 꼭간부	기장 가동	■	■	■	■	■	■	■	■	
		김해 대청	■	■	■	■					
		창원 신방리		■	■	■	■				
		울산 평천리		■	■	■	■				
		양산 명동		■	■	■	■				
		합안 오곡리			■	■	■				
		거제 아주동			■	■	■				
		창녕 계성리			■	■	■				
		창원 봉림동					■	■	■	■	
		함양 우명리					■	■	■		
		평지	김해 봉황대	■	■	■	■	■			
			진주 평거동		■	■	■	■			
울산 천상리				■	■	■	■				
산청 하촌리						■	■	■	■		
김해 봉황동						■	■	■	■		
울산 서하리							■	■	■		
창원 가음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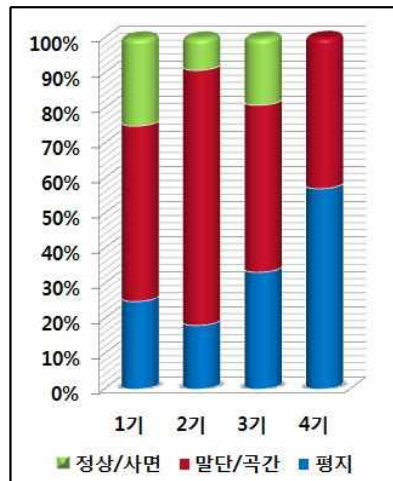
이러한 입지차이는 환경의 변화, 혹은 사회체계의 변화 등에 의한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집단 간의 생업경제활동의 차이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당시로서도 주거지의 선택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을 것이다.³⁷⁾

구릉 정상부 및 사면부에 입지한 유적은 기장 대라리유적, 울산 매곡동유적, 양산 가촌리유적, 합천 저포리유적 등이 있으며, 이 중 기장 대라리유적의 경우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는 수혈주거지와 함께 제사유구, 대형 지상식건물지 등의 의례와 관련된 영역과 목책열 같은 방어시설 확인되며, 인접하여 동시기의 묘역군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점과 장기간 유지된 점 등으로 보아 방어적 성격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구릉 말단부 및 곡간부에 입지한 유적은 기장 가동유적, 김해 대청유적, 창원 신방리유적, 창원 계성리유적, 거제 이주동유적, 창원 봉림동유적 등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며, 평지상에 위치한 유적은 김해 봉황동유적, 울산 천상리유적, 울산 서하리유적, 창원 가음정유적, 산청 하촌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창원 가음정유적, 진주 평거동유적은 경작유구가 함께 확인된다.

표 4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취락이 입지한 지형은 전시기에 걸쳐 구릉과 평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기별로 나열해 보면 선호도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표 5. 시기별 입지의 선호도



구릉 정상부 및 사면부에 입지한 유적은 그 수는 적지만 3기까지 유지하다가 4기가 되면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며, 구릉 말단부 및 곡간부에 입지한 유적은 1기부터 4기까지 다수를 이루지만 3기부터는 그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평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4기에서는 절반이상을 차지한다(표 5).

이로보아 삼국시대 취락의 입지는 초기에는 구릉정상부와 사면, 그리고 평지 등 여러 곳에서 분포하다가, 후기가 되면 하천변의 자연제방이나

³⁷⁾ 김현준,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취락의 입지에 대한 일고찰 - 생업양상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보』2, 호서고고학회, 1999.

선상지와 같은 넓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거지 구조

(1) 평면형태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한다. 방형은 1기부터 4기까지 꾸준히 확인이 되며, 장방형은 2기부터 3기까지, 세장방형은 3기부터 4기까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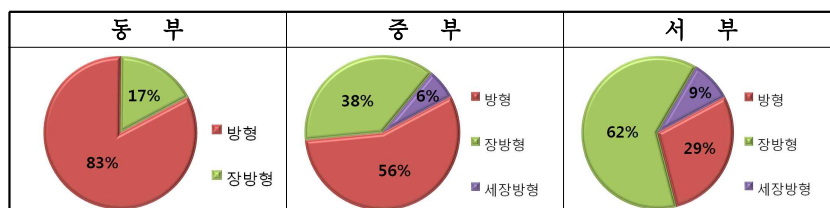
방형은 모든 단계에서 확인되는 반면 장방형은 2기에 세장방형은 3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단계별 변화양상을 보인다.

표 6. 방형계 수혈주거지 평면형태의 변화양상

평면형태 \ 시 기	1기	2기	3기	4기
방형(I)	1	40	60	3
장방형(II)		7	63	5
세장방형(III)			7	1

또한 지역별로 평면형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평면형태의 선호도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부지역은 방형이 83%, 장방형이 17%로 방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중부지역은 방형 56%, 장방형 38%, 세장방형 6%로 방형이 다수 차지한다. 반면 서부지역은 방형 29%, 장방형 62%, 세장방형 9%로 동부·중부 지역과는 달리 장방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표 7).

표 7. 지역별 방형계 수혈주거지 평면형태의 선호도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아 평면형태는 시기성과 지역성을 같이 반영하는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동배치

기동배치 형태는 지붕의 하중과 벽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거지의 공간이용과 외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 내부공간의 활용, 증·개축, 건물의 폐기상황 등의 다양한 사실들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속시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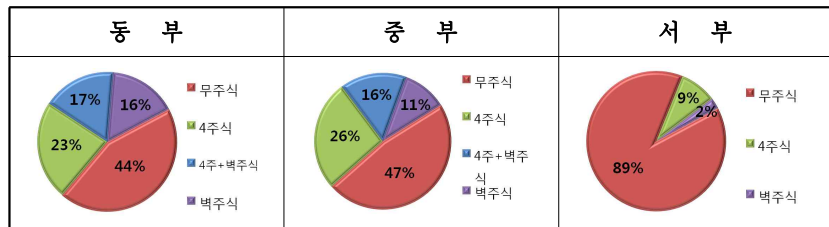
기동배치 형태는 1기에 무주식만 확인되며, 2기가 되어 4주식과 4주+벽주식이 나타나지만 무주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3기에도 2기와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이나 벽주식이 새롭게 등장한다. 4기가 되면 무주식만 잔존하고 다른 형식은 소멸하는 양상을 보인다(표 8).

표 8. 방형계 수혈주거지 기동배치의 변화양상

시 기	1기	2기	3기	4기
무주식(A)	1	35	77	8
4주식(B)		7	24	
4주+벽주식(C)		8	9	
벽주식(D)			16	

또한 지역별로 기동배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기동배치의 선호도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부지역은 무주식 44%, 4주식 16%, 4주+벽주식 17%, 벽주식 16%로 다양하게 확인이 되며, 중부지역은 무주식 44%, 4주식 26%, 4주+벽주식 16%, 벽주식 11%로 무주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서부지역은 무주식 89%, 4주식 9%, 벽주식 2%로 무주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동부·중부지역에서 확인된 무주식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가 확인이 된다(표 9).

표 9. 지역별 방형계 수혈주거지 기동배치의 선호도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기동배치 형태는 시기성과 지역성을 같이 반영하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3) 노시설

노시설은 난방, 취사, 채광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내부시설로 주거지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표 10. 방형계 수혈주거지 노시설의 변화양상

노시설 \ 시기	1기	2기	3기	4기
	구들형(가)	1	16	52
부뚜막형(나)		19	34	

구들형은 1기부터 4기까지 지속적으로 채용되며, 부뚜막형은 2기부터 3기까지 확인된다. 또한 노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가 2기부터 4기까지 다수 확인이 된다(표 10).

표 11. 지역별 방형계 수혈주거지 노시설의 변화양상

시기 \ 지역	1기	2기	3기	4기
	동부	1	14	33
중부		2	2	5
서부			1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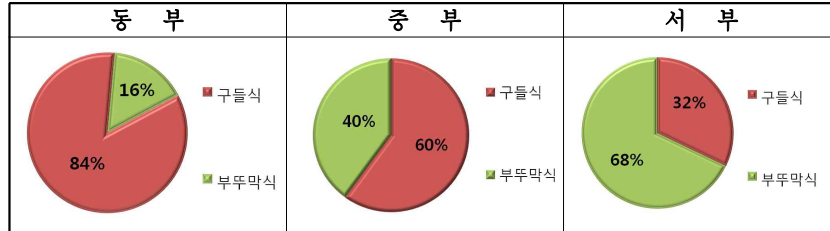
구들형(가)

시기 \ 지역	1기	2기	3기	4기
	동부		1	8
중부		5	1	
서부		13	25	

부뚜막형(나)

또한 표 11을 통해 지역별로 노시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동부지역은 1기부터 3기까지 구들형이 지속적으로 채용되며, 부뚜막형은 2기부터 3기까지 확인이 된다. 그리고 구들형이 84%, 부뚜막형이 16%로 구들형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중부지역은 구들형이 2기부터 4기까지 채용되며, 부뚜막형은 2기부터 3기까지 채용되고 4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채용비율은 구들형 60%, 부뚜막형 40%로 비슷하게 채용되었다. 서부지역은 구들형이 3기부터 4기까지 채용되며, 다른 지역보다 구들형이 늦게 채용되는 현상을 보인다. 부뚜막형은 2기부터 3기까지 채용되다 4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선호도는 구들형이 32%, 부뚜막형이 68%로 부뚜막형이 다수를 차지한다(표 12).

표 12. 지역별 방형계 수혈주거지 노시설의 선호도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시설은 시기성보다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이해된다.

(4) 규모

주거지의 규모는 거주자의 신분이나 지위, 주거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규모는 내부구조의 변화, 생활면적의 크기뿐만 아니라 생활수단의 변화, 그에 따른 가족 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표 13. 방형계 수혈주거지 규모의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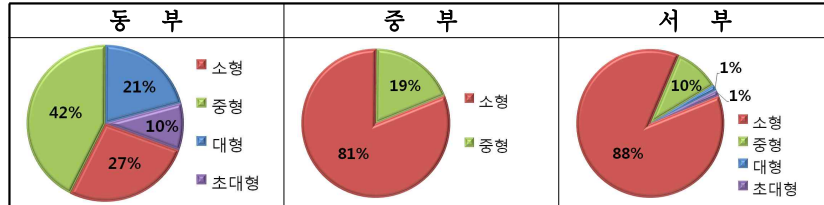
면적	시기			
	1기	2기	3기	4기
소형(1)		31	70	8
중형(2)	1	12	33	
대형(3)		2	16	
초대형(4)		2	7	

삼국시대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규모는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형은 2기부터 4기까지 확인이 되며 3기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중형은 1기부터 3기까지 확인되며 점차적으로 수가 증가하여 3기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나, 4기가 되면 확인이 되지 않는다. 대형과 초대형은 2기~3기에 확인되며, 그 수는 소형이나 중형에 비해 수가 적다.

지역별로 규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규모의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부지역의 경우 2기~3기에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중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중형과 대형, 초대형 등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중부와 서부지역은 소형이 80%이상을 차지하며 대형과 초대형은 극소수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동부지역과의 뚜렷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모는 시간적 속성보다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14).

표 14. 지역별 방형계 수혈주거지 규모의 선호도



3) 주거유형의 변천

지금까지 주거지 구조의 변천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를 통해 비교적 시기성을 잘 반영하는 속성은 평면형태와 기동배치 형태라고 파악하였으며, 노시설은 시기에 따라 뚜렷하게 변화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주거유형의 기준은 평면형태와 기동배치 형태로 두었다. 평면형태는 크게 방형(I), 장방형(II), 세장방형(III)으로 나뉘며, 기동배치 형태는 무주식(A), 4주식(B), 4주식+벽주식(C), 벽주식(D) 등으로 세분하였다. 시기별로 주거유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5. 시기별 입지와 주거지 구조의 변화양상

구분		시 기				
		1기	2기	3기	4기	
입지	구릉	정상/사면				
		말단/곡간				
	평지					
평면 형태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기동 배치 형태	무주식					
	4주식					
	4주식+벽주식					
	벽주식					
노시설	구들형					
	부뚜막형					
면적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1기에는 IA가식(□)만이 확인된다. IA가식(□)은 평면형태 방형에 무주식으로 구들이 확인되는 주거유형이다. 이러한 형태는 기장 대라리유적, 기장 기동유적에서 나타나며, 동시기에 포항 호동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대구 봉무동 유적 등 영남 내륙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김해 봉황대유적에서도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유형은 알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

주거지 대표유형은 방형에 구들이 설치된 IA가식(□)으로서 동부지역 전역과 중부지역 중 김해 지역 일부에서 확인되며, 서부지역에서는 아직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기에는 평면형태가 방형인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며, 장방형의 주거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기동배치도 무주식에 이어 4주식과 4주+벽주식이 등장하며, 노시설도 새롭게 부뚜막이 나타나는 등 주거지 내부시설이 다양화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IIA나식(□)은 서부지역 진주 평거동에서 먼저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평면형태의 변화는 서부지역에서 2~3세기에 유행하던 타원형 수혈주거지 요소에 방형의 평면적 요소가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주거지 대표유형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동부지역은 IC가식(□)과 IB나식(□)이 등장하여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부지역은 IB가식(□), IA나식(□), 서부지역은 구들이 설치된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IIA나식(□)이 주된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3기에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등 평면형태가 다양화되는 시기이다. 또한 기동배치에서 4주+벽주식에서 주주혈인 4주가 사라진 벽주식이 새롭게 확인된다. 그리고 이 4주+벽주식과 벽주식이 확인되는 주거유형에는 노시설 중 구들은 확인이 되나 부뚜막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 대표유형은 동부지역은 2기에서 주된 유형인 IC가식(□)과 IB나식(□)에서 주주혈인 4주가 사라진 ID가식(□)과 IA나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 더욱 발달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중부지역 또한 동부와 마찬가지로 형태를 보이다 평면형태가 장방형화 되는 IID가식(□), IIA나식(□)이 대표유형으로 자리 잡는다. 서부지역은 동부·중부지역과는 다르게 IIA나식(□)에서 주주혈인 4주가 설치된 IIB나식(□)으로 변














하며, 구들이 설치된 II가식(□)이 새롭게 등장하여 자리잡게 된다.

4기에는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등 다양하게 확인이 되나 기둥 배치 양상은 무주식, 노시설은 구들형만 확인이 된다. 이 시기에는 동부, 중부, 서부지역 모두 수혈주거지의 수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주거지가 지상화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내부시설이 단순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대표유형은 동부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상화되는 단계가 빠르게 나타난다.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중부지역은 부뚜막이 설치된 주거지는 사라지고, 석재로 구들을 조성한 II가식(□)이 대표유형으로 자리 잡지만 그 수는 적은 편이다. 서부지역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변화가 적어 전체적인 형태변화는 없으며, 중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뚜막이 설치된 주거지는 사라지고, 구들이 확인되는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세장화된 III가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으로 각 시기마다 나타나는 주거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이 시기별 주거 유형과 지역별 주거지의 대표유형의 변천과정을 표 16·17로 정리하였다.

표 16. 경남지역 주거지유형 변천도

유형		시기			
		1기	2기	3기	4기
I	A	 爐 - 가	 爐 - 가, 나	 爐 - 가, 나	 爐 - 가
	B		 爐 - 나	 爐 - 가, 나	
	C		 爐 - 가	 爐 - 가	
	D			 爐 - 가	
II	A		 爐 - 나	 爐 - 가, 나	 爐 - 가
	B			 爐 -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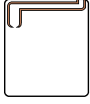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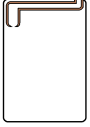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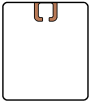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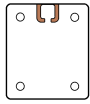
유형		시기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C					 爐 - 가	
	D					 爐 - 가	
Ⅲ	A					 爐 - 나	爐 - 가
	B					 爐 - ×	
	C						
	D					 爐 - 가	

표 17. 지역별 주거지 대표유형 변천도

지역		시기		1기	2기	3기	4기
		1기	2기				
동부	구들	 IA가	 IC가		 ID가		
	부뚜막		 IB나		 IA나		
중부	구들	 IA가	 IB가		 IID가		 IIA가(석재)
	부뚜막		 IA나		 IIA나		

지역		시기			
		1기	2기	3기	4기
서부	구들				
	부뚜막				
			ⅡA나	ⅡB나	
				ⅡA가	ⅢA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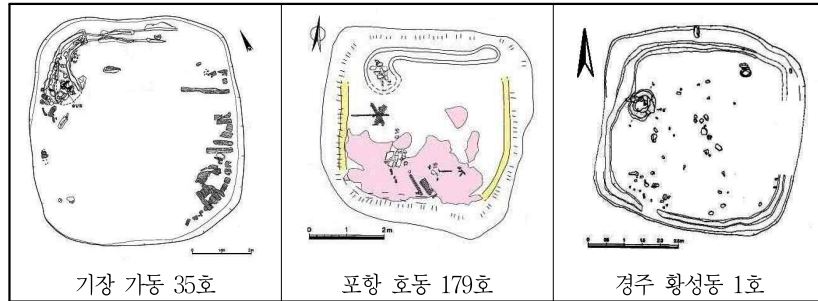
2. 주거지의 전개

본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주거유형들이 각 시기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전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기(3세기 말엽~4세기 초엽)

1기는 토기의 기종이 회백색연질토기에서 회청색경질토기로 바뀌며, 묘제는 목곽묘가 전성기를 이루며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하는 시기이다. 또한 삼국시대 주거지가 삼한시대에 이어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확인되는 주거유형은 IA가식(□)으로 해당유적은 기장 대라리 유적, 기장 가동유적, 김해 봉황대유적이다. 주로 동부지역에서 확인되며, 이 주거유형은 영남 내륙지역의 포항 호동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등 다수 유적에서 확인된다는 점으로 보아 IA가식(□)은 이 시기에 영남 내륙지역과 경남지역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부지역의 김해는 낙동강 하류역이라는 지리상 이점에 기인하여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김해 봉황대유적에서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다른 중부지역보다 앞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동부지역과의 교류 등을 통한 문화적 접이 지대로 파악된다.



도 7. IA가식(□)의 주거유형 분포

2) 2기(4세기 중엽~4세기 말엽)

2기는 토기의 기종이 가장 다양화되는 시기로 묘제는 여전히 목곽묘가 전성기이며, 수혈식 석곽묘는 발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주거역이 점차 구릉아래쪽으로 확장되어 구릉말단부 및 곡간부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하천과 인접한 충적대지에 진주 평거동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해당유적은 기장 대라리유적, 울산 평천리유적, 양산 명동유적, 창녕 계성리유적 등의 동부지역과 김해 봉황대유적, 김해 대청유적, 창원 신방리유적, 거제 이주동유적, 함안 오곡리유적 등의 중부지역과 서부지역 중 진주 평거동유적이 해당된다.

주거지 유형은 평면형태가 방형인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며 장방형의 주거지도 새로이 등장한다. 기둥배치는 무주식에 이어 4주식과 4주+벽주식이 등장하며, 노시설도 새롭게 부뚜막이 나타나는 등 주거지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IIANA식(□)은 서부지역 진주 평거동에서 먼저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평면형태의 변화는 서부지역에서 2~3세기에 유행하던 타원형 수혈주거지의 요소에 방형의 평면적 요소가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물이라 판단된다.

3) 3기(5세기 초엽~6세기 초엽)

3기는 무개고배가 점차 줄어들고 유개고배가 유행하며 묘제는 목곽묘가 쇠퇴하고 수혈식석곽묘가 전성기를 이루며 수혈계황구식석실묘와 횡혈식석실묘가 출현 발전하는 시기이다.

앞 시기부터 조성된 유적에 이어 새롭게 조성되는 유적은 동부지역의 울산 매곡동유적, 울산 서하리유적, 울산 천상리유적, 양산 가촌리유적, 중부지역의 김해 봉황동유적, 창원 봉림동유적, 창원 가음정유적, 서부지역의 함양 우명리유적, 합천 저포리유적, 산청 하촌리유적 등이다.

입지는 구릉과 평지에 모두 확인되며 특히 평지지역에 입지하는 유적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주거지 유형은 이 시기에 세장방형 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며, III가(나)식을 제외한 모든 주거유형이 확인된다. 이 시기에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이 현격한 차이점이 확인된다. 평면형태의 경우 동부지역은 방형이 주가 되는 반면, 서부지역은 장방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기둥배치에 있어 동부지역은 무주식, 4주식, 4주+벽주식, 벽주식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서부지역은 무주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동부지역은 중형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소형, 대형, 초대형도 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서부지역의 주거지 규모는 대부분이 소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 시기에 서부지역의 내륙까지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확산됨으로써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경남지역 전역에 조성된다. 이와 반대로 원형계 수혈주거지는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4) 4기(6세기 중엽~7세기대)

4기는 567년 가야 멸망 전후로 토기는 앞 시기에 유행하던 많은 기종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환형꼭지에 천정부가 둥근 개와 각부가 짧은 단각고배 및 이중구연대부장경호 등이 동반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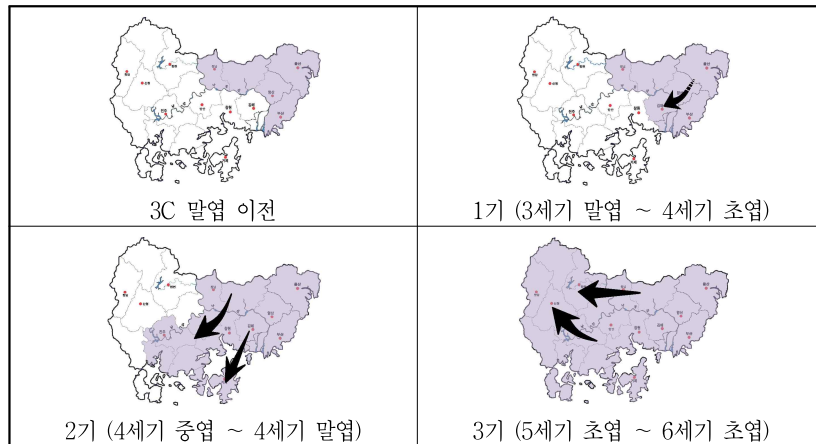
묘제는 수혈식석곽묘가 쇠퇴하고 수혈계횡구식석실묘와 횡구식·횡혈식석실묘가 발전·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이다.

해당유적은 동부지역의 울산 서하리유적과 기장 기동유적, 중부지역의 김해 봉황동유적, 창원 봉림동유적, 창원 가음정유적, 서부지역의 산청 하촌리유적 등이 해당된다.

입지는 3기보다 구릉말단부 및 곡간부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며 평지가 다른 입지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유형은 대부분의 유형이 소멸하고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등 다양하지만 기둥배치는 무주식만 확인이 되며, 노시설 또한 구들형만 확인이 되는 등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6세기 이후 기장 고촌유적³⁹⁾, 기장 기동유적, 김해 관동

³⁹⁾ 경남문화재연구원, 『고촌유적(1지구)』, 2010.

리유적³⁹⁾, 김해 아랫덕정유적⁴⁰⁾, 창원 반계동유적⁴¹⁾, 창원 봉림동유적 등 지상식건 물지가 대단위로 확인되는 유적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점차적으로 수혈주거지에서 지상식건물지로 대체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도 8. 경남지역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전개과정

이상을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남지역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시기적인 주거유형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크게 동부, 중부, 서부지역을 나누어 1기부터 3기까지 단계적으로 동에서 서로 확산되어가는 전개 양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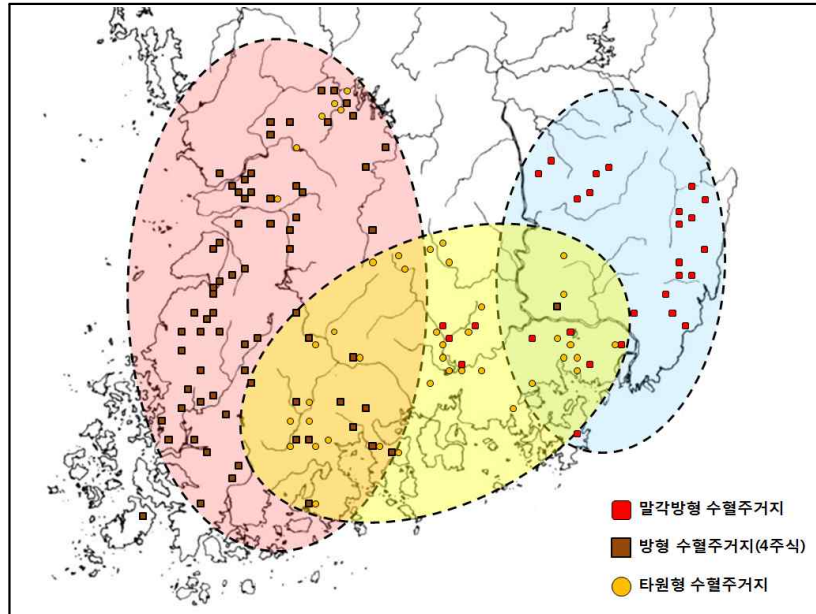
이러한 방향성은 동부지역이 낙동강 상류 이동지역의 방형계 수혈주거문화를 중부·서부지역에 비해 보다 먼저 수용하게 되며, 낙동강 하류역에 위치한 김해를 점이지대로 하여 중부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이후 서부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상남도만이 아니라 호남지역까지 살펴보면 호남동부지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원형, 방형이 혼재하는 점이지대이며, 그 서쪽의 백제의 주거지 형태는 전형적인 방형계 수혈주거지이다. 경남 서부지역 진주 평거동유적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신라보다는 백제와의 문화접변 등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이 된다. 『高麗史』나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문헌 기록에 따르면 진주 지역은 “본시 백제 거렬성(居列城)인데, 신라 문무왕 2년(627년) 계해에 이를 탈취하여 주(州)를 삼았다...” 고 되어있다.⁴²⁾ 이와 함께

³⁹⁾ 삼강문화재연구원,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 2009.

⁴⁰⁾ 동의대학교 박물관, 『김해 아랫덕정유적』, 2004.

⁴¹⁾ 창원대학교 박물관, 『창원 반계동유적 I』, 2000.



도 9. 삼국시대 평면형태별 수혈주거지 분포도⁴³⁾

동부지역의 창녕 계성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주거지 또한 호남지역에서 다수 확인이 되는 사주식 방형계 수혈주거지와 유사하고, 유물도 백제계 토기가 다수 출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에서 서로의 일방적인 문화전파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당시의 변화과정에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경남지역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중 평면상 방형계의 수혈주거지를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통해 시기와 전개양상을 파악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먼저 주거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1기~4기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주거유형은 평면형태가 1기에서 3기로 갈수록 점차 세장한 형태가 등장한다. 주로 방형은 동부지역, 장방형은 서부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상

⁴²⁾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慶尙道 晉州牧.

⁴³⁾ 김진철,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1쪽, 삽도 26 인용 후 각색.

을 보인다. 기둥배치 형태는 1기에 무주식이 확인된 이후 4기까지 꾸준히 확인이 되며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용되다 4기에 무주식을 제외한 모든 형태는 소멸한다. 노시설은 구들형이 1기부터 단계별로 동에서 서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부뚜막형은 2기부터 3기까지 전 지역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규모는 시기성보다는 지역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동부지역에는 중형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소형, 대형, 초대형도 고르게 나타난다. 반면 서부지역은 소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주거지의 전개양상은 1기에 동부지역에서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자리잡아가며 단계별로 동에서 서로 확산되어 3기에는 경남지역 전역에서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신라가 위치했던 낙동강 상류 이동지역이 낙동강 이서지역보다 앞서 방형계 수혈주거지가 다수를 점하고 있던 점과 낙동강 이서지역으로 방형계 주거문화가 확산되어 가는 방향성으로 보아 신라 주거문화가 가야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되어가는 과정이라 판단되지만 호남지역의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방형이라는 점으로 보아 동에서 서로의 일방적인 문화전파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출토 유물 정황상 『高麗史』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본시 백제 거렬성(居列城)인데, 신라 문무왕 2년(627년) 계해에 이를 탈취하여 주(州)를 삼았다.”는 내용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⁴⁴⁾

이러한 점은 차후 자료가 보다 확충되고, 주변 분묘유적 뿐아니라 생산유적, 방어유적 등 다양한 유적과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면 당시의 사회생활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투고일 2013년 2월 9일 |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일 ■

⁴⁴⁾ 『三國史記』 지리지에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고 사항의 하나 정도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의 고고학적 조사연구가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85.
- 오홍석, 『취락지리학』, 교학연구사, 1994.
- 권오영,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해 봉황대유적』, 1998.
- 이희준, 「김해 예안리 유적과 신라의 낙동강 서안 진출」, 『한국고고학보』39, 한국고고학회, 1998.
- _____, 「신라의 가야 복속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영남고고학보』25, 영남고고학회, 1999.
-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9.
- 동아대학교 박물관, 『양산 물금유적』, 2000.
- 이희준, 「삼한 소국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 취락 분포정형을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보』43, 한국고고학회, 2000.
- 임영옥, 『영남지역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인주, 「삼국시대 가형토기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5,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1.
- 창원대학교 박물관, 『'94창원 가음정동유적』, 2001.
- 홍보식, 「고고자료로 본 가야 멸망 전후의 사회동향」, 『한국상고사학보』35, 한국고고학회, 2001.
-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해 대청유적』, 2002.
- 김옥순, 「4~5세기 영남지역 취락의 공간성과 사회단위」, 『신라문화』2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 취락연구회,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 춘추각, 2004.
-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천상리 평천유적』, 2005.
- 정일, 『전남지방 3~5세기 사주식주거지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서하리 서하유적』, 2006.
- 윤성호, 『신라의 가라국 복속 과정에 대한 일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경남고고학연구소, 『김해 봉황동유적 442-7번지유적』, 2007.

- 이주성, 『삼한시대 경남지역 수혈주거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공봉석,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수혈건물지의 구들 연구」, 『한국고고학보』66, 한국고고학회, 2008.
- 우리문화재연구원, 『함안 오곡리 87번지 유적』, 2008.
- _____, 『창녕 계성리 유적』, 2008.
- 김진철,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함순섭, 「영남지역 삼한·삼국시대 살림집의 복원연구」, 『동단학술논문집』제9집,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8.
- 공봉석, 「경남 서부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제18회 학술발표대회 영남고고학회)』, 2009.
- 김창역, 「영남내륙지역 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영남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제18회 학술발표대회 영남고고학회)』, 2009.
- 동서문화재연구원, 『함양 우명리유적』, 2009.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가음정동유적(上)』, 2009.
- _____,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2009.
- 배덕환,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입지형태에 따른 지역성 연구」, 『문물연구』15,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9.
- 배덕환·김민수, 「삼국시대 고상건물의 주거로서의 가능성」, 『취락연구 I』, 취락연구회, 2009.
- 울산대학교 박물관, 『기장 가동유적Ⅱ』, 2009.
- 최충기, 『울산지역 초기국가의 형성과 전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경남문화재연구원, 『진주 평거동유적 I-삼국시대-』, 2010.
- 권태용, 『경산 임당유적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지연, 『한국 고대 시루(甗)에 대한 일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천수, 『가야토기 - 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2010.
- 강숙이, 「3~6세기대 경남서부지역 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남연구』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 강정미, 『기장 가동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장 청강·대라리유적(Ⅱ지구)』, 2011.
- _____, 『산청 하촌리유적Ⅱ』, 2011.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산청 하촌리유적』, 2011.
- _____, 『진주 평거3-1지구 유적』, 2011.

- 한국문물연구원, 『창원 봉림동유적 I』, 2011.
- 권귀향, 『낙동강 이서지역 삼국시대 주거지 전개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홍보식, 「신라·가야의 이주자료와 이주유형」, 『이주의 고고학(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2011.
- 박광춘, 「가야토기 양식론」, 『문물연구』22,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2.
- 부경문물연구원, 『양산 명동 명곡2토지구획지구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2012.
- 우리문화재연구원, 『거제 아주동 1485번지 유적』, 2012.
- 한국문물연구원, 『창원 봉림동유적Ⅱ』, 2012.

Abstract

Change and evolvement of a square-shaped dwelling of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in Kyeongnam province

Jeong, Woo-Hyeon

There have been lots of achievements for pit dwellings of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but it is still a particle. Many of them only focus on fabric analysis of individual elaiosphere or analysis of interior facilities like Goodle and the pit dwelling with circle or oval shape is studied a lot but a square-shaped dwelling is less investigated, because it has been found and its data has been collected recently. So, I pursue an investigation, focusing on figuring out the structure, change and development phase of a square-shaped dwelling of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in Kyeongnam province.

I subdivide housing places of the square-shaped dwelling, found in Kyeongnam province, into eastern part and western part, based on the geographical water system and set servitude. Next, I find out structural features of dwellings around plan shape, intercolumniation, old facilities and size. I discriminate periods by reading a chronology of earthenware, found at tumulus because relic, found in living spaces, suffered a heavy damage and soft earthenware had little change in formation.

The shape of dwelling had become slandered from 1st period and 3rd period and many of square dwellings were found in the eastern part and the rectangle was found in the western part. Astylar style had been constantly used for intercolumniation from 1st period to 4th period and many other types had been used stage by stage and other types, except astylar were extinct in 4th period. Old facilities with Goodle type had been expanded from the east to the west from 1st period and with

wood-burning stove type had been expanded to entire area between 2nd period and 3rd period. The size reflects the regionality and the middle size one was the most in the eastern area and there were equally small, large and extra-large one. But the small one was largely found in the western area.

The square-shaped pit dwellings started to emerge at the eastern area in 1st period and they were expanded from the east to west, after that, and they were found in entire Kyeonam province in 3rd period. Two facts that the square-shaped pit dwelling were settled in the upper region of the Nakdong earlier than the lower areas and the square-shaped dwellings were spread from the lower areas of the Nakdong mean that housing culture of Silla was extended to outside through exchange with Gaya. But, it is thought that Jinju suffered a change through cultural assimilation with Baekje than Silla for the geographical reasons and Gyeseong-ri of Changnyeong of the eastern area's square-shaped pit dwellings are similar with those of Baekje and there is lots of earthenware, related to Baekje than Changnyeong. So the unilateral cultural diffusion from the east to the west can't be made. Also, the 4th period is judged as a transition, when the pit dwellings became surface structures, through reasons that the pit dwellings were rapidly diminished and the number of surface structures, found, was increasing.

Key Words : The period of Three States, Kyeongnam province, square-shaped pit dwellings, position, plan shape, formation of intercolumniation, old facilities, type of dwellings

